

의안번호	제267호
------	-------

발 의 년 월 일

2024. 3. 4.

##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강선구 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강선구 의원 외 10인

#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강선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67호

발의연월일 2024. 3. 4.

발 의 자 강선구, 이상우, 홍원표, 임종용,  
박중수, 장순관, 김영진, 김태금,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의원  
(11인)

## 1. 주 문

- 사과는 우리나라의 과수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과일로 국내 약 7만여 농가가 사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재배 기술, 품종개발 등으로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30만 톤의 수입산 과일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과 뉴질랜드 등과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향후 사과 수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으로 과수 산업 전체가 도미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예견되는 일이며, 식물검역 장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음.
- 이에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국내 사과 농가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사과 수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외국산 농산물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거치는 절차는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그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과와 배 등의 신선과일 수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과 수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으로 과수 산업 전체가 도미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예견되는 일이며, 이는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결국에 우리는 먹거리 주권마저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불임

나. 건의안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 사과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

사과는 우리나라의 과수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과일로 국내 약 7만여 농가가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재배기술, 품종개발 등으로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과수현장에서는 기후위기와 병충해 등 각종 농업재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30만 톤의 수입산 과일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과 뉴질랜드 등과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사과의 수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선 사과의 수입이 허용될 경우 가져올 식물검역 장치의 붕괴입니다.

외국산 농산물은 국내에 들어올 때 무려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수출국에서 수입허용을 요청한 농산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절차는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그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과와 배 등의 신선 과일 수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 장치의 붕괴는 질병, 병해충, 오염물질로부터 국민과 동식물을 보호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통계청 2023년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과 생산량은 39만 4,428톤으로 전년의 56만 6,041톤보다 30.3% 감소했으며, 감소 사유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후 과수 폐원과 착과수 감소, 기상 이변에 따른 병충해 등의 피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과와 배가 금값이 된 건 지난해 날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봄에는 냉해와 우박의 피해를 보았고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을철 수확량이 뚝 떨어진 겁니다.

과일의 생산 주기는 1년 단위로, 그해 농사가 흉작이 드는 경우 그 영향은 이듬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부권에서 가장 큰 사과 주산지인 예산의 과수농가들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예산은 풍부한 일조량과 예당호의 수자원을 활용하여 사과재배를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1995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113ha의 면적에서 1,008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신품종인 엔비와 속빨간사과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엔비는 1ha당 50,000kg, 속빨간사과는 1ha당 35,000kg의 생산량을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선진 사과단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사과 수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으로 과수 산업 전체가 도미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예견되는 일입니다. 이는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결국에 우리는 먹거리 주권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사과 수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국내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 위기와 다양한 재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4. 3.

예산균의회 의원 일동